

가정 예배 모범

- 2022_08_14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8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풍요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찬송가 268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레위기 25장 1~ 22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2절)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여 자라난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일곱 번째 해에는 파종도 경작도 할 수 없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안식은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되는 6년 동안 더욱 풍성한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바쁜 시간을 보내며 경제활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풍요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2)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10-12절)

희년에 토지와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가 공포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렸던 사람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잃었던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종하지 말아야 했고, 전년에 수확한 밭의 소출을 먹어야 했습니다. 희년에는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의 불균형으로 만들어진 불평등한 관계와 부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 희년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희년제도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